

박순경의 민족통일신학에 기초한 한반도중립국 이론

이봉석 (감리교신학대학교 강사)

I. 시작하는 말

II. ‘한반도 중립화’의 초석으로서 박순경의 ‘민족’개념

1. 전체주의의 이념으로서 민족과 구별되는 신학적 ‘민족’개념
2. 존재론에 근거한 ‘민족’개념과 반공이데올로기의 위험성
3. 통일운동의 주체로서 ‘민족’개념 안에 특수성과 보편성

III. 한반도의 영구평화를 위한 중립국 이론

1. 한반도 중립화의 역사
2. 한반도의 영세중립통일의 가능성
3. 왜 영세중립국통일이어야 하는가?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1.51.10>

• ABSTRACT •

A Study on Park Soon-Kyung' National Unification Theology and Neutrality of The Korean Peninsula

Lecturer., Lee Bong-seok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a model on the neutral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Park Soon-kyung's unification theology. With this purpose, this study presents Park's three characteristics of the concept 'nation' from the stance of 'not picking sides,' which can be called Christian pacifism. First, as a theological theme, 'nation' indicates the idea of contract in the Old Testament and the 'brotherly community' in the New Testament. Second, the 'nation' itself should follow the Biblical commandment "Love your enemy," going beyond anti-communism for survival while sharing the ontological history between the two n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ird, 'nation,' including the ordinary people and women, should become the primary agent of unification and pursue the peace of shalom to solve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tradictions. Concerning a new country of unified Korea, Park supported the Goryeo federal system as a concept of unification theological 'nation.' However, this researcher believes that the application of the idea of nation and unification theology is more valid to the theory on the permanent neutrality of unification than to the Goryeo federal system as a third way and seeks an alternative to build a permanent peace regime by developing the validity from three perspectives.

Key words: Neutrality of the Korean Peninsula, National Unification Theology, Nationalism, Anti-communism, Pacifism

I. 시작하는 말

남북한은 언제든지 전쟁으로 다시 치달을 수 있는 정전 상태에 놓여 있다. 정전 상태를 종식하고 영구적 평화를 제도로 세우자는 것은 당위적이며 보편타당한 일이다. 이러한 단순 명료한 인류 보편적 가치와 원칙으로부터 제76차 유엔 총회 기초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회원국들 앞에서 제안했다.¹⁾ 새로운 통일 한국이 민족 문제의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통일 한국을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함께 종전선언을 하자’는 ‘말’의 선포로서 동북아의 지정학적(geopolitical) 환경에 평화조성을 시작 하자는 것이다. 종전선언이 전쟁을 포기하고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므로 오스틴(John Austin)의 발화수반행위의 언어이다. 발화행위에 뒤따라 약속, 명령, 질문, 진술, 강요 등의 행위가 일어나는 언어행위 이론에 따라 종전선언은 곧 평화협정과 같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함의 단계를 유발한다. 따라서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의 말이라 할지라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역사적 전환의 시작을 의미한다. 정전협정의 당사국(북한, 미국, 중국)들 동의로 성사만 된다면 한반도에서 새로운 통일 한국을 보게 될 날이 더 가까질 것이다.²⁾

1) BBC News 코리아, (2021.9.27), 종전선언: 북한, 임기 말 한국 정부에 대화 시그널... 갑자기 왜?, <https://www.bbc.com/korean/news-58636272>, 2021년 12월 10일 최종 접속.

2) 김태우, “소외된 남북한, 요원한 평화: 한반도 군사 정전협정의 내용과 성격,” 「내일을 여는 역사」 제51권(2013), 93-94쪽. 김태우는 정전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정전협정의 합의 조항들이 양측의 불성실한 이행에 의해 사실상 와해하였다고 말한다. 특히 정전협정에서 남한이 소외되는 것에 대해 밝히는데, 김태우에 따르면 미국은 1951년 5월 17일 군사적 수단이 아닌 정치적 해결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 회의에서 채택하여 다양한 경로로 공산 측에 전달하였다. 소련 측 유엔주재 대표 말리크(A.V. Malik)는 미국의 의사를 북한과 중국에 전달하였고

역사적으로 정전협정 후 3개월 이내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했어야 했던 것을 고려하면 한반도의 평화협정은 이미 체결됐어야 했다.³⁾ 정전협정으로부터 68년이 지난 2021년까지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정전협정의 주체로서 연합군 중심의 미국과 한국 그리고 공산군 측의 북한과 중국이 자신들의 임무를 방기한 결과이다. 한반도 상황을 자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보고 현 상태(status quo)를 의도적으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팽창을 위해 그리고 미국은 대중국 압박 정책을 위해 분단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⁴⁾ 종전협정의 당사국으로서 미국과 중국이 분단의 문제를 풀 의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남북한은 민족의 안보와 번영 그리고 영구적 평화를 위해서 정전의 정체상태를 유지하게 할 순 없다. 남·북한이 서로 주체적으로 분단의 역사 문제를 해결하여 치유와 회복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정전을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당시 미국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미군의 사상자로 인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결국 유엔 측의 미국과 공산 측의 중국의 물리적 피해가 급증하고 공산측의 군사적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정전협정이 체결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북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미국 측은 한국을 협상에서 배제하였고, 중국은 형식적으로 북한 대표를 협상의 전면에 내세웠다. 북한이 협상에 전면에 내세워졌다 해도 내용적으로 철저히 소외되었기에 정전협정에서 한국인들의 정치적 군사적 배려는 없었다.

- 3) 위의 논문, 101. 1957년 7월 27일 조인된 정전협정문 제4조. 쌍방 관계 정부들 사이의 건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 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 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 것임에 건의한다.”
- 4) 정육식,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북미관계와 한반도,” 『기독교 사상』 750호(2021.06), 12.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오바마 행정부에 나온 것이다. 모두가 실책이라 평가하는 ‘전략적 인내’는 점증하는 북핵 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현 상태(status quo)를 유지한 대표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핵 위기를 명분으로 미사일 방어체제를 고리로 삼는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미국의 동북아 정책이 한반도의 통일과 대중국 압박에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 정부가 평화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그 일을 담당해야 할 주체는 한 민족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1년 현재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향한 주변 정세가 무르익고 있다. 한국의 역량도 이전보다 놀랍도록 신장하여 정치, 경제 그리고 국방의 위상이 동북아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급부상했다. 북한 역시 개방의 의지를 세계에 보이며 ‘보통 국가’로 나아가려 한다.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통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이끌어가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통일에 대한 국제정세가 무르익고 남한과 북한 내 통일을 염원하는 세력의 역량이 준비되었음에도 새로운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 한민족은 서로 간에 풀어야 과제가 있다. 그것은 새로운 통일 한국의 국가체제를 정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통일 논의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흡수통일 또는 연방제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지배적이었다. 이 양자택일이 오히려 통일 논의를 더 진전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분명하다. 통일과 관련된 신학적 담론에서 역시 흡수통일과 연방제 통일이 혼재된 가운데 논의가 진행되었다. 연구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통일 연구의 주체로서 민족의 강조, 분단의 고통, 신도 불이 신학에 따른 민족의 동질성과 문화적 주체성 회복, 철저한 반공에 대한 지지, 북한 선교를 위한 북한교회 회복, 북한교회 재건 등 다양한 주제들이 연구되었다. 통일에 대한 연구와 흐름 가운데 인권과 민주화 그리고 북한선교를 주제로 한 연구가 흡수통일에 근거하고 있다. 반면 1990년대 중반부터 정책과 제도 그리고 정치·사회적 과정에서 드러난 통일 논의에 기독교적 연구가 풍성하게 일어났다. 김낙중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독교적 시각”이 있었다. 박순경의 민족통일신학은 통일 담론에 특별한 위치를 점한다. 민족신학적 통일신학은 거대 담론으로서 새로운 통일 한국의 국가 모델, 즉 고려연방제의 지지를 표하며 한국사회에 민족 중심의 통일 논의를 활성화했다. 그 외에도 이성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독교적 시각”, 강문규의 “남북합의서 이후의 기독교

통일운동”, 유석성의 “통일의 방안과 평화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 등 많은 수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⁵⁾

그러나 통일 한국의 국가 양태 혹은 정치체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 구체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2012년 유경동이 중립화를 통한 평화통일의 가능성에 주목하였고, 남과 북의 정서적 공감(empathy)의 확대를 통한 긴장 완화로 상호간 미움과 배타주의를 넘어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미학적 통일’을 구상한 바 있다. 김태우는 “2000년대 통일 정책: 중립화 통일과 수렴적 통일”에서 중립화 통일 모델이 여전히 살아 있는 주제임을 밝혔다. 2000년 이후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국가 모델에 대한 분석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구자는 기독교의 평화주의 입장과 현실주의 입장 차이를 종합할 수 있는 통일론이 중립화 모델이라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신학적 차원에서 한반도 내에 영구평화 정착을 위해 한민족이 극복해야 할 과제를 밝히고,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의 중립국화’ 모델을 제안하려 한다. 이를 위해 1장에서 논자는 박순경의 통일신학에서 ‘민족개념의 중요성을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 박순경의 통일신학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반도 중립국 이론을 검토할 것이다. 본 논문이 밝히고자 하는 박순경의 ‘통일신학’과 ‘한반도 중립국 모델’이 한반도에서 영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현실 정치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한반도 중립화’의 초석으로서 박순경의 ‘민족’개념

박순경의 ‘통일신학’에서 통일의 주체로서 ‘민족’은 중요한 신학적 의미

5) 이창호, 『평화통일 신학과 실천: 기독교 통일 연구의 흐름과 전망』 (서울: 나눔사, 2019), 35. 이창호는 통일 연구의 흐름과 전망을 시대별로 꼼꼼하게 기록하여 통일 분야의 연구에 토대가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를 지닌다. ‘통일신학’의 ‘민족’ 개념이 국제 관계 속에서 한국 중립화를 구상할 수 있게 하는 초석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박순경의 통일신학이 한반도 중립화에 중간 역할을 하고 있음을 살펴보자.

1. 전체주의의 이념으로서 민족과 구별되는 신학적 ‘민족’개념

박순경은 ‘민족’을 신학적 주제로 다루었다. 통일의 주체로서 ‘민족’은 파시즘이나 나치즘 그리고 메이지 유신에 근거한 일본의 국민주의와 같은 고립적 민족 개념이 아니다. 박순경의 ‘민족’개념은 전체주의로 귀결되었던 민족주의와 구별되어야 한다. 한 민족의 종족적 우월성에 근거한 전체주의의 민족 개념이 폭력과 파괴 그리고 지배와 억압을 죄의식 없이 자행하는데 이념적 근거였다면, 박순경이 구상한 ‘민족’은 실존적 존재의 기반으로 창조신앙과 역사 공동체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혈통과 아훼 신앙을 따라야 이스라엘 민족(יִשְׂרָאֵל)이 되는 성경적 민족이라는 독특성을 따른다.

역사 이전 구약은 셈족의 혈통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동일한 뿌리가 됨을 말하지만, 구약성서 전체는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민족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역사 이후 아브라함이 민족의 시조가 되는 축복에도 약속과 계약이 등장한다. 계약에 복종할 때 ‘위대한 민족’이 된다는 것이다. 출애굽 이후에서도 ‘거룩한 민족’ 개념이 이스라엘 민족을 결정짓는 특징으로 추가된다. 신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혈연 공동체의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형제적 결사체로서 공동체를 민족으로 삼았다.⁶⁾ 이와 같은 의미에서 박순경이 ‘혈통 자체만 민족형성에 있어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다’라 말한 것은 역사 속에서 민족주의가 폭력과 압제의 열광주의로 발전되는 것에 대한 근원적 비판이라 할 수 있다.⁷⁾

6) 박순경, 『통일신학의 여정』 (서울: 한울, 1992), 17-36.

예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라고 가르쳤으며,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라 말하며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하나님의 백성 됄을 보여주었다.(막3:35, 요19:26-27) '민족'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그 민족의 뿌리와 혈연으로 이어진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전체주의적 민족 개념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을 새로운 '민족' 개념으로 '옳음과 좋음의 민족 공동체'를 구상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2. 존재론에 근거한 '민족'개념과 반공이데올로기의 위험성⁸⁾

박순경의 '민족' 개념은 통일 한국에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론적 근거이다. 박순경은 8·15 민족해방의 역사적 사건을 자신이 신학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라 밝혔다. 8·15 해방의 사건이 박순경 자신에게만 주어진 경험이 아니라 한민족 전체가 공유했고, 이 해방의 사건을 출애굽 사건으로 본 것이다. 해방을 통해 굴종과 예속의 삶은 마감되고 새로운 자유인의 삶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험이다. 다시 말해 박순경에게 해방의 사건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로부터 통일된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민족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다.

7) 위의 책, 18.

8) 남시욱, 『한국 보수세력 연구』 (파주: 나남, 2006), 19-20. 조선조 말(1860-1870) 세 개의 사상적 흐름이 있었다. 첫째, 최익현을 중심으로 통상을 거부하고 미국과 프랑스의 수교를 거부하였던 위정척사파(衛正斥邪派)가 '중화적' 세계질서를 고수했다. 둘째, 동학(東學)사상은 종교적 신앙에 근거하여 유토피아적 혁명사상이다. 셋째, 개화사상은 근대화를 지향하는 정치적 현실주의이다. 한국의 보수세력이라 부르는 우파세력은 세 가지 사상적 흐름에 영향을 받았고 그 가운데 개화사상의 영향이 가장 컸다. 오늘날까지 한국의 정치 경제 대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큼 한국인의 의식 밑바닥에 침전되어 있다 할 수 있다.

문제는 역사 안에서 연이어 일어난 분단이라는 민족모순이다. ‘민족 자체의 좋은 삶을 구상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반공이데올로기가 통일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분열로 이끌어갔다. 분단이 남한과 북한에 전례 없는 민족적 비극을 낳은 근본 모순이 되었다. 김태우의 국제민주여성연맹(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의 한국전쟁 진상 조사 보고서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초토화정책(scorched earth policy)’에 의해 최악의 대량 살상과 파괴가 한반도 전 국토에 걸쳐 일어났다. 일례로 신의주 시내 한 곳에서만 일어난 미 공군의 폭격으로 2100호의 공공건물, 6800호의 가옥, 16개의 초등학교, 14개의 중등학교, 2개의 병원이 하루 만에 파괴되었다. 11월 8일 하루만 8만 5,000발의 폭탄이 투하되었다. 국제민주여성연맹의 보고서는 Amm.Lot RN 14-29 shell MJ For M2 a MFL1 Lot-GL-2-116 1944 MJBCA2 ACT464 등의 불발탄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이 날의 폭격이 초토화정책의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9)

반공의 이념이 남한과 북한 지역의 인명피해와 삶의 터전 파괴를 초래한 것이다. 반공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상실의 고통과 파괴로부터 고착된 생각의 덩어리이다. 문제는 반공 이념이 성서와 민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반공기독교와 한미동맹이 한 몸이 되었다. 지금의 세계는 구시대의 낡은 이념으로 정세가 형성되는 냉전체제가 아니다.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따라 행동한다. 반공의 이념이 유물과 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데 왜 놓지 못하는 걸까? 박순경의 신학적 성찰에 의하면, 박순경 자신은 해방 직후 1946년 직후부터 이미 이승만 박사 계통의 반공노선에 반대하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 미국 유학 생활을 거치면서

9) 김태우, 『냉전의 마녀들, 한국전쟁과 여성주의 평화운동』 (과주, 창비, 2021), 146-147. 김태우는 국제민주여성연맹(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이 파견한 일단의 평화활동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한국전쟁 진상 조사 보고서, 이른바 『우리는 고발한다』(We Accuse)를 연구하며 남한과 북한의 전쟁 피해의 참혹함을 객관적 자료로 제공하였다.

도 통일과 연계된 사유는 계속되었다. 뉴욕 유니온 신학교 에큐메니칼 회원으로 공부할 때 항일민족운동, 민족분단, 한국교회의 반공은 옳은가 등의 문제를 검토했고 결론으로서 자신이 반공노선에 반대하였던 초기 자기 생각이 옳았다는 결론을 얻었다.¹⁰⁾

다시 말해 반공 이데올로기는 한민족 자체의 역사가 아니라 이식되고 덧입혀진 잘못된 거짓 이념이다. 한민족 전체가 누구의 편을 들어 원수로 삼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에 가담하면서 스스로 자멸의 열광주의에 빠진 것이다. 이데올로기란 현실적 조건들, 즉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변하면 언제든지 낡은 생각의 덩어리로 변한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변화를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절대 선일 수 없다. 오히려 반공 이데올로기가 민족모순을 극대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1945년 해방 직후부터 미국은 자신의 편에 충실한 이승만 정권으로 반공군사 체제를 구축하였다.¹¹⁾ 한국기독교와 이승만 정권이 미국의 반공 정책을 완벽히 합일하여 민족 자주성 상실과 분단의 고착화를 심화시켰다.¹²⁾ 반공을 지지하는 이승만, 미국 그리고 북에서 죽임당하

10) 박순경, 『통일신학의 고통과 승리』 (서울: 한울, 1992), 22-24. 1946년 박순경은 여운형의 인민공화국 통일 노선을 지지했고, 이 일로 퇴학 위기에 몰렸다. 1958년 미국 유니온 신학교 에큐메니컬 회원으로 공부하며 민족분단,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만남 그리고 한국기독교의 반공이 옳은가 등을 검토했다. 1975년 유럽에서 연구하며 기독교의 반공이 극복되지 않고는 한민족의 새로운 미래는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처럼 박순경의 신학 연구의 여정은 처음부터 민족분단의 부당함과 통일의 당위성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 끝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역사 속에서의 행함이었다.

11) 위의 책, 91. 박순경은 개인과 민족이 당한 비극적 사건의 원인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주의와 미국과 소련 등의 팽창주의에서 찾는다. 식민주의와 팽창주의가 민족모순의 시작이었고, 민족모순의 극복이 세계 내 자본주의 사회가 지닌 계급모순보다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민족분단의 세계 정치적 발단은 일본의 식민주의통치에서 비롯되었으며, 1945년 이래의 분단은 미·소를 비롯한 세계의 지배 세력들에 의해서 결관된 것이나, 미국의 팽창주의와 반공 봉쇄정책과 남한의 반공정권들에 의해서 견지되어왔으며 한국기독교는 이에 편승해왔다.”

12) 위의 책, 121.

고, 집을 빼앗기고 교회를 잃은 월남 기독교들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 반공 이념을 국가 존속의 이유로 삼았다. 더욱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북한군에 의해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은 반공이 살길이라 여겼다. 한민족 전체가 내재화했던 고통의 결과가 반공 이념이고, 해방을 경험한 한민족이 서로의 원수가 되어 증오하는 모든 생각들의 총체적 표상이 반공 이데올로기이다.

이병성의 연구에 의하면, 반공을 국시로 하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 이른바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는 ‘서로 다른 지향성을 가진 두 이념은 해방 이후의 갈등과 한국전쟁 그리고 냉전체제를 거치면서 남한 사회에서 아주 강하게 결합된다.’¹³⁾ 특히 한경직으로 대표되는 기독교계는 반공 국가의 지지를 확고히 했고 반공 국가와 자유주의 이념이 민족을 지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해방 직후부터 북한에서 공산주의의 억압을 경험한 것이 반공 이념의 확고한 입장을 지닌 첫째 이유이고, 자유주의적 남한이 북한 공산주의에 승리함으로써 철저히 자유주의 국가 이념에 근거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자유가 없는 통일은 남한 국민에게 죽은 통일이다.¹⁴⁾ 주류 기독교는 자유가 민족과 국가보다 앞서는 흡수통일론을 따르고 있다.

새로운 통일 한국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반공 이데올로기의 유효기간이 다 되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현시점 냉전체제는 끝이 났으며 새로운 세계 권력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한반도의 정치지형만 냉전체제의 영향 아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타자(북한 정권)를 ‘원수로 규정하는 반공 이념을 넘어서 새로운 정치지형에 부합하는 시대정신, 즉 ‘원수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국제 관계의 역사 아래 형성

13) 이병성. “한국 개신교와 민족주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대 민족대단결 민족주의,” 『기독교사회윤리』 48(2020), 168.

14) 위의 책, 172.

된 시대 정신으로 나아갈 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정신은 민족문제의 해결을 향한 이념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박순경에게 사회주의와 대화는 한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로 살기 위해 필연적으로 수행해야 할 존재론적이며 신학적인 과업이었다.

“1975년 유럽에서 나는 두 가지 결단을 내렸다. 첫째로 한국신학은 한민족과 통일문제를 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한국기독교는 사회주의를 포용함으로써 통일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기독교의 반공은 세계분단의, 한국기독교선교와 한국기독교의 반공은 한민족 분단의 정신적 요인이다. 유럽에서 나는 또다시 기독교의 반공이 극복되지 않고는 한민족의 새로운 미래는 없다는 단안을 내렸다.”¹⁵⁾

3. 통일운동의 주체로서 ‘민족’개념 안에 특수성과 보편성

박순경은 통일운동이 한반도에 관련된 한민족의 특수한 성격을 띠고 동시에 세계 평화에 영향을 주는 ‘보편운동’으로 인식하였다. 어쩌면 통일운동과 세계평화가 무슨 연관이 있나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박순경은 이러한 일반적 이해의 무지를 지적한다. 박순경에 따르면 ‘통일신학이 한민족의 재통합, 민족사회 변혁, 세계 변혁의 과제에 동참하면서 또한 한국교회와 신학, 세계교회와 신학의 변혁이라는 과제를 가진다’¹⁶⁾ 민족모순의 해결과 세계모순의 해결이 같이 간다. 한민족에 평화가 이루어지면 세계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세계에 평화를 이루려면 한민족부터 평화를 누려야 한다. 어떻게 한 민족의 특수한 상황이 세계사적 의미의 보편이 될 수 있을까?

한반도의 분단은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그리고 미국의 자본주의와

15) 박순경, 『통일신학의 고통과 승리』, 24.

16) 박순경, 『통일신학의 여정』, 65.

제국주의가 낳은 지배세력의 표출이다. 서양의 기독교 문명 세계의 지배는 하나님의 세계통치와 섭리인 것처럼 여기며 자본주의의 팽창과 세계 내 패권에 협동하였다. 세계 내 패권을 팽창하려는 국가들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죄의식 없이 억압과 폭력의 구조 아래서 이익을 누렸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은혜이지 권력의 상부구조가 아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지배욕과 물질 소유욕과 같은 정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히려 세계경제 체제와 지배로부터 해방된 민족의 이야기와 죄 아래 거하는 세상 제국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복음이다. 이런 의미에서 박순경은 민족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한민족에게는 해방의 새로운 역사가 되고, 분단을 강제했던 제국에 속한 민족에게는 심판과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역사에 들어가게 됨을 말한다. 한마디로 ‘오늘의 세계는 한 배를 탄 인류의 공동체 운명 아래 놓여 있다.’¹⁷⁾

박순경이 해방신학과 마르크스주의를 하나로 보는 시각에 반대한 바 있다. 해방신학이 마르크스주의의 사회 분석 방법을 차용하여 현존하는 남아메리카 사회와 세계 구조의 계급모순을 극복하려 한 것은 맞다. 그러나 해방신학이 강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눌린 자의 조건이 시정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박순경이 특수한 남미의 상황을 하나님의 정의 부재로 판단 한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 부재라 하면, 가난한 자와 가난한 나라 그리고 부자와 부자인 나라 모두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음이 드러난다. 이런 까닭에 남미의 특수한 상황에 미국, 유럽, 세계가 보편적으로 호응하고 반응한 것이다.¹⁸⁾ 결과적으로 억압 당하는 자의 특수성은 억압하는 자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보편적 지평 위에 있다. 마찬가지로 박순

17) 박순경, 『하나님나라와 민족의 미래』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4), 363.

18) 위의 책, 361.

경의 ‘민족’ 개념에는 태초에 창조된 인간 존엄의 회복이라는 보편적 구원이 들어 있다. 그래서 통일이 한민족 특수성의 문제이고 동시에 보편적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편협한 민족이 아닌 인류 보편의 당위와 연결된 ‘민족’ 개념을 구상한 것은 박순경 통일신학의 공로일 것이다. 한민족의 평등이 세계 시민의 평등을 확대하는 것이고, 한민족의 자유와 평화설립이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민족’ 개념 안에 특수성과 보편성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 통일의 주체로서 민족, 민중, 여성을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민중은 민족 내의 특수층이다. 사회·경제적으로 기층(하비루)을 이루는 계급을 의미하고, 사회 내적 모순의 해결을 요구하는 변혁의 주체이다. 권리보다 의무가 많은 이들의 총합으로서 자신의 아픔을 소리치는 이들도. 여성은 민족이며 동시에 민중이다. 여성은 남성의 지배의식과 구조 안에서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억압을 경험하고 있다. 여성들이야말로 민중이 기층을 이루었던 것처럼 남성에 의한 지배구조의 가장 밑바닥에 놓여있다. 이은선은 박순경의 통일신학을 연구하며 여성 문제를 푸는 것이 민족 모순을 푸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성(性)과 젠더의 불평등과 억압 문제는 여전히 세계 보편의 문제이며, 그러한 억압적 구조가 의식적으로 문제화되지 않고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제1세계’의 사람이든 ‘제3세계’의 사람이든 마치 서양기독교가 제3세계의 신음소리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듯이, 모든 남성은 여성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다.”¹⁹⁾

19) 이은선, “한국 여성신학자 박순경 통일신학과 聖·性·誠의 여성신학” 『한국여성신학』 91호(2020), 99.

민족모순 내에 얽혀 있는 여성의 문제를 푸는 것은 단순히 여성만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가 아니다. 어머니 한민족의 운명을 지고 세계에서 민족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민중의 자유와 권리를 대변하는 일을 여성해방자들이 하고 있다.²⁰⁾ 이런 의미에서 여성이 통일의 주체에 포함되는 것은 특수성이 보편성과 하나임을 말한다. 분단 때문에 민족, 민중, 여성이 충분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통일을 통해 민족내외부에 걸친 분단으로 인한 구조 악을 극복하려 한다면, 그 주체에 여성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은선은 박순경의 통일신학을 민족, 민중, 여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민족’ 개념으로 평가한다.

이정배는 박순경의 통일신학에서 민족의 당파성과 인류 보편성 사이의 불이(不二)성, 민중과 민족의 불이(不二)성이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성서적 계약(출애굽)신앙과 민족 간에 동일성을 강조했고 그 토대에서 민족신학을 정초하였다. 이로써 반공기독교와 단절하고 분단 해체를 위한 통일신학의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이정배는 계급, 이념, 성별, 종교를 총괄하는 민족 개념이 민족 자신의 모순을 해결할 주체임과 동시에 세계모순의 해결의 단초가 됨을 재조명하였다.²¹⁾

지금까지 살펴본 박순경의 ‘민족’ 개념은 서구사회가 경험한 민족과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열린 ‘민족’ 개념의 제시이다. 역사 안에 드러난 ‘원초적 유대(공동체성)’와 ‘원수 사랑’의 예수 정신이 ‘민족’을 결정짓는 요인이다. ‘원수 사랑’의 예수 정신이 열린 민족 경계선을 만든다. 둘째로 8.15해방 사건은 민족이 새로운 통일 한국의 미래를 구상하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이다. 해방의 사건은 존재론적이며 운명적이다. 한국전

20) 위의 책, 108.

21) 이정배, (2020.6.25.), 한국전쟁 발단(원인) 논쟁에서 본 통일과 그의 신학적 함의,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64>, 2021년10월 21일 접속.

쟁은 반공 이념 아래 편을 드는 일이 민족의 존재론적 위기임을 밝혔다. 셋째로 민족, 민중, 여성이 통일의 주체가 되는 일이 민족모순을 해결하는 특수성임과 동시에 지배와 착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세계모순을 해결하는 보편성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민족’ 개념의 정초 위에 사회주의 편을 드는 것이나 반공 이데올로기의 편을 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지정학적(geopolitical)인 완충의 평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현재까지 사회주의 블록(북한, 중국, 소련)과 자본주의 블록(남한, 일본, 미국)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완충의 평화적 공간 만들기로서 한반도의 중립화가 영구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제 한반도의 중립화를 살펴보자.

III. 한반도의 영구평화를 위한 중립국 이론

1. 한반도 중립화의 역사

지금까지 검토한 박순경의 통일신학의 ‘민족’ 개념으로부터 한발 더 나아가는 것의 시작은 고려연방제의 한계로부터 시작된다. 다시 말해 박순경은 하나의 연방국 아래 두 개의 다른 국가체제를 두는 것에 지지하는 입장을 표하였다. 이른바 ‘고려연방제’이다.

“내 연방제론 주장은 정부에 대한 한 조언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 선교가 통일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기독교 목사들에게 말하기 위한 것이다. NCC 통일 위원회와 신학자들을 비롯한 교회의 통일운동과 선교는 대체로 통일방안을 말하지 않으려는 주저와 보류를 표명해왔는데, 통일을 외치면서 통일과 통일방안은 별개의 것이라는 식의 그러한 생각을 수정하기 위해서 나는 동경강연에서 연방제론을 거론하기로 했다.”²²⁾

22) 박순경, 『통일신학의 고통과 승리』, 179-180.

“남한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본주의 그리고 북한 정치적 전체주의와 경제적 사회주의가 통일 한국에서 양립하여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남북이 상호 보완하면서 새로운 민족사회를 건설하여 국제 사회에서 민족 자주성을 확립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²³⁾

서광선의 말처럼 고려연방제와 주체사상과 대화는 ‘한국교회의 남북분단의 극복과 평화통일을 향한 신학적 담론과 정치운동을 그가 확장한 것이다.’²⁴⁾ 사실 남한 내에서 누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김일성 수령에 대해 평가하면서 북한과의 이념적, 사상적 대화를 제안할 수 있겠는가. 제3의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세계 비전의 제시라는 측면에서 서광선은 박순경의 통일신학이 교회 안팎에 통일 한국을 향한 반향을 일으켰다고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남한 내 진보진영은 88선언에 근거하여 ‘고려연방제’를 통일 한국의 국가 양태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한반도의 존재 양태로서 중립화론이 끊임없이 거론되었고, 현재에도 중립화론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이다. 역사 속에서 번번이 실행되지 못했으나 열강들의 공동보장에 의한 한반도 중립화는 실행까지 논의된 바 있다. ‘고려연방제’보다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립화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중립화가 처음 구상한 것은 19세기 중반 유길준(1856~1914)이었다. 그는 『중립론』을 1885년 집필하였고, 조선의 중립화를 제기하는 원인을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에 반해 스스로 지킬 능력이 부족하고, 약소국으로서 조선이 외세에 대응하여 독립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데서 찾는다. 김종학은 유길준의 청의 영향 아래 있는 중립론을 재조명하였다.²⁵⁾

23) 위의 책, 59.

24) 서광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8), 312.

25) 김종학, (2021.01.05.), 한반도 공동보장 구상의 역사적 기원: 19세기 벨기에·불가리아의 사례와 유길준의 「중립론」,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

김종학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1882년부터 1950년 한국전쟁이 있기까지 한반도에는 3번 2개 이상의 열강 군대가 주둔했다. 그때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²⁶⁾ 먼저 1881년 일본의 후원으로 신식군대 ‘별기군’이 창설되면서 구식군대인 훈련도감 등 5영을 2영으로 축소하고, 축소로 인한 해고에 봉급도 지급하지 않았다. 전라도에서 세곡선이 도착한 이후 그나마 1개월 치 월급을 쌀로 지급하였는데 그나마도 쌀에 모레와 겨가 섞여 지급되었다. 이에 격분한 구식군대의 병졸들이 소요를 일으켰다. 이것이 임오군란이다.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청의 군대가 파견되었고, 일본은 공사관 수비를 명분으로 군인 300명이 파견되어 제물포에 상륙하였다. 청과 일본은 3년간 주둔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을 내세워 구한말 조선의 결정에 개입했다. 심지어 청과 조선 사이의 텐진조약을 맺는 일에 영국은 대놓고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인정하였다. 조선이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에 겪는 업신여김이었다. 결국 갑신정변(1884)이 일어나 조선의 왕궁에서 청일 양국의 교전이 일어났다. 1894년 동학 난으로 인해 청일 양국이 재차 출병하여 2개월간 주둔하였고, 양국의 대립은 청일전쟁으로 이어졌다. 끝으로 1894년부터 1904년 한일협정이 있기까지 일본과 러시아는 동수의 군대를 한반도에 공동 주둔시켰다. 러시아는 남하하여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조선을 두기를 원했고, 일본 역시 대륙으로 자신들의 패권을 확장하기 위해 조선을 병참기지로 만들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러일전쟁이 일어났다.

이처럼 열강의 군대가 한반도에 주둔하면 어김없이 전쟁과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다. 놀랍게도 열강들은 하나같이 조선의 ‘독립’을 위한 전쟁이었다고 프로파간다를 했었다. 2개 이상의 외국 군대가 한반도에 주둔하면

PblctView.do?clCode=P03&pblctDtaSn=13699&koreanEngSe=KOR , 2021년 8월24일 접속.

26) 위 자료, 2021년 8월 24일 접속, 5.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는 김종학의 역사 설명은 유길준의 중립국론이 제시된 이유를 시사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청의 영향 아래서 중립국이 되어야 러시아 일본 등의 위협으로부터 조선 자신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시혁은 유길준의 중립화에 대해 ‘일본은 조선의 중립을 보장할 힘이 없었고, 미국은 고립주의 때문에 조선에 개입하기를 꺼렸으며 거리도 멀어 군대를 동원하기 어려웠다. 유일한 방법은 청이 조선 측의 제의를 받아 열강에 제안하는 방안이었기에 청에 우호적인 중립론이 되었다’고 말한다.²⁷⁾

사실 유길준은 ‘군사력과 경제력이 극도로 취약함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조선이 스스로 보전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열강들의 합의에 의한 영세중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해결책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되는 데 있을 것이다. 국가로서 자강하지 못하여 다른 국가들의 조약을 빌어 근근이 자보의 계책으로 삼으려는 것은 또한 매우 구차할 뿐이니, 어찌 사람이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그러나 국가는 스스로 자신의 형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억지로 큰 소리를 치는 것은 끝내 일에 무익할 뿐이다.... 오직 중립 한 가지 일만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책이다.”

1945년 분단 직후부터 미국에서 한반도의 중립화 안이 다시 나왔다.²⁸⁾ 1947년에는 웨드마이어(Wedemeyer) 장군은 중국 위기와 한국 위기의

27) 남시혁, 『한국 보수세력 연구』, 63.

28)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프린스턴 대학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이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이었다.

해결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위촉받았고, 트루먼(Truman) 대통령에게 한국의 항구적 군사 중립화를 제안하였다. 황인관에 의하면 한반도의 영구 중립화 제안은 한국전쟁이 끝나기 몇 달 전까지 공산주의를 혐오했던 맥아더(MacArthur) 원수에 의해서도 지지받았던 해결방안이었다.²⁹⁾ 1953년 휴전회담이 있던 때에도 중립화 방안은 다시 논의되었다. 당시 국무장관 덜레스(J.F. Dulles)가 중립화 방안에 호의적이었으나 합동참모본부의 수뇌부들의 반대 입장을 넘어서지 못하여 중립화 주장은 사장되었다.

미합동참모본부의 반대이유는 중립화론이 실현되기 위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했다. 하나는 북한이 이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자들이 중립화 제안에 동의나 합의를 해주어야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양자 모두가 한반도 통일 후 중립화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중립화시킨다는 것이 한반도를 공산주의자들의 지배 아래 놓겠다는 목표의 포기를 의미해서이다. 결국 미국 내에서 제시된 스위스식의 중립화 방안은 군부와 이승만의 반대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³⁰⁾ 사실 국무장관 덜레스가 1953년 8월 서울을 방문하여 이승만에게 한반도 중립화 방안을 타진했다. 이승만은 단호히 반대하였다.

중립화와 관련하여 남한 내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다. 1953년 5월 휴전협정 체결 직전에 일본 동아일보 주필 김삼규가 한반도중립화를 위한 한국위원회를 조직하고 적극적인 통일운동을 벌였다. 같은 해 7월 재미학자 최봉윤은 한반도 영세중립통일 방안을 마련해 강대국들과 비동맹국가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김삼규, 최봉윤, 김용중(〈한국의 소리〉 발행인) 등

29) 프랑소아 주아시오, “통일을 위하여 한반도를 중립화할 것인가?,” 『국제정치논총』 제27호(1987), 128. 중립화 제안은 1952년 12월 17일 맥아더는 덜레스(J.F. Dulles)와 함께 아이젠하워(Eisenhower)를 만나는 자리에서 중립화 해결방안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Neutrality of Germany, Austria, Japan and Korea guarante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with all the other nations invited to join in as co-guarantors.”

30) 위의 책, 129.

이 통일중립 민족정부를 미·영·소·불 4개국 정부에 제안하는 활동을 했다.³¹⁾

실질적으로 중립화 논의는 1960년 한 차례 더 있었다. 1955년 2차대전 패전국으로 연합국의 분할점령 아래 있던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국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으며 통일을 이루었다. 이 영향으로 미국의 맨스필드(Mike Mansfield) 상원의원이 한국을 방문하여 중립화를 제안하였다. 당시 장면 총리는 반대하였다.³²⁾

북한의 경우 중소안보갈등 초기(1958년)부터 중립화 정책, 이른바 등거리 외교를 실행한 바 있다. 중소분쟁의 발생은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흐르시초프(Khrushchev)에 의한 자본주의 진영과 평화공존 제창과 스탈린에 대한 격하가 시발점이었다. 당시 소련은 제국주의와 전쟁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며 평화공존을 주창하였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제국주의와의 일대 결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공산주의 세계전략에 대한 중소 사이의 이념투쟁 양상은 서로 간의 안보 분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중국이 소련에 미사일 개발 원조를 요청하였고 양국 사이에 1957년 ‘국방 신기술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1960년 소련은 이념투쟁 상황에서 이미 체결된 ‘국방 신기술에 대한 협정’을 파기하며, 자국의 미사일 기술 전문가들의 귀국 조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중소 양국과 안보 조약을 맺으며 향후 양국이 충돌할 경우 개입하지 않을 명분을 등거리 외교로 얻어냈다.

“1960년대 들어와서 일부 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에 발생한 이견 상이는 사상 이론적 범위를 벗어나 국가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 단결에 저해를 주었다... 어느 한 개의 사회주의국

31) 남시혁, 『한국 보수세력 연구』, 368.

32) 위의 책, 368.

가나 혹은 일부 국가들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을 다 같이 옹호한다.”³³⁾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 중립의 위치를 갖는다는 것은 이상적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현실화 될 수 있는 통일 정책이었다. 북한은 중립적 위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선례를 보여주었다.

2. 한반도의 영세중립통일의 가능성

역사의 결정적 순간 매번 중립화가 논의되었던 것은 한반도 영세중립 통일 모델이 강대국들 사이의 합의라 보아야 할 것이다. 강대국들 역시 중립화의 두 조건을 무시할 이유가 없다. 첫째로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한 국민의 일치된 의지가 있다. 통일연구원이 조사한 ‘KINU 통일의식조사 2021’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020년 52.7%에 비해 2021년 조사에서는 6.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를 상회하였으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실패 이후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추세였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통일의 필요성 응답이 상승하는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이슈로 떠오른 종전선언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물음에는 응답자 중 73.3%가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고르게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정부가 종전선언을 위해 미국을 설득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³⁴⁾ 이와 같이 통일의 염원이 높은

33) 이상숙, (2021.04.29), 중소분쟁 시기 북한 등거리외교의 특성과 현재적 함의,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lCode=P01&pblctDtaSn=13780&koreanEngSe=KOR>, 2021년 10월 31일 접속.

34) 이상신 외, (2021. 7), KINU 통일의식조사 2021,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e17db3fa-a0ed-41c7-9067-81e3962cd34a>, 2021년 12월 8일 접속.

것은 영세중립 통일로 가는데 커다란 장점이다. 역사적으로 한민족은 하나의 공동체였다. 한민족 스스로 분단을 선택하였던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었다. 서구 열강이 아프리카에서 했던 것과 같이 지도위에 임의의 분단선을 그어 남과 북을 나눈 것이다. 분단은 남북한 민족 모두에게 많은 고통과 상실의 아픔을 주었다. 모두가 자유롭게 개성과 서울을 오가던 본래의 한민족의 모습을 되찾고 싶어 한다. 따라서 본래 하나이었던 민족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은 역사가 낳은 비극적 아픔과 상처를 딛고 통일 한국을 위한 과제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런 의미에서 박순경의 통시적 ‘민족’ 개념이 영세중립 통일에 기여한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일이 민족의 생존과 존속에 관한 문제이기에 통일 염원은 당위적이다. 통일이 존속의 문제인한 허투로 다룰 수 없다. 집중하여 민족의 사활을 건 문제로 풀어야 할 것이다.

“통일은 불평등한 사회 경제구조의 극복과 피억압 민중의 해방과 평등한 생존권 확립 즉 새로운 통일된 민족사회 창출이라는 과제를 가진다. 민족해방 자주성 확립은 민중해방 생존권 확립의 민족사적 모체이며, 후자는 전자의 목표이다. 민주화·통일운동은 민족 민중의 소리이다.”³⁵⁾

둘째로 중립화는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외부 세력의 경쟁이 치열하면 할수록 그 현실화 가능성은 크다. 그리고 경쟁국들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면 할수록 가능성은 더 커진다.³⁶⁾ 한반도의 국제 정세가 그렇다. 세계 내 모순, 즉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적 싸움은 한반도가 완충지역이 되기를 원한다. 한민족이 어느 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중립의 위치를 지킨다면 중국은 중립

35) 박순경, 『통일신학의 여정』, 98.

36) 강광식, 『중립화와 한반도 통일』 (서울: 백산서당, 2010), 97.

화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것도 접경지역에 완충국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 미국 역시 한국을 아시아 전략에서 중요도가 높은 최우선 순위로 놓고 있지 않다. 역사에서 보았듯이 중립화를 제안한 것도 미국 측이었다. 게다가 미국의 태도에서 한국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이려는 일환이 보이며, 자국의 병사가 외국 땅에서 희생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것은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국제전략적 안목에서 이정배는 한국전쟁을 일제 침략과 이념 갈등 등의 세계적 모순이 집적된 결과로 평가한다. 이러한 인식의 기초 위에 ‘주체적 평화통일의 본뜻과 방향 또한 역시 세계사적 차원에서 논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평화통일이 민족통일 수준을 넘어 세계사의 궤적과 향방을 바꾸는 대사건이 되어야 하다고 하였다.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중립국화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세계사적 대사건으로서 한반도의 종전 선언과 평화정착을 위해 ‘미군철수에 대한 논의, 트럼프의 방위비 증가 등의 언급은 ‘비무장 중립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³⁷⁾

민족이 원하고 국제전략적 안목에서도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은 중립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신호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경동은 남북한 평화와 국제평화가 이상주의나 기독교 온정주의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주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중립화를 제안하였다. 현재의 다양한 정세를 고려한 현실주의적 정책에 가장 가능성 있는 정책이 한반도 중립화이다. “남북한이 대치된 현 상태에서 군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근접한 대안으로 필자(유경동)는 ‘중립화(neutralization)’를 들 수 있다고 본다.”³⁸⁾

그렇다면 유경동이 한반도에서 중립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37) 이정배, 한국전쟁 발단(원인) 논쟁에서 본 통일과 그의 신학적 함의, 2021년10월21일 접속.

38) 유경동, 『남북한 통일과 기독교의 평화』 (서울: 나눔사, 2012), 148.

무엇인가? 이 물음에 유경동은 현실화하지는 못했으나 역사적 계기마다 계속 한반도 중립화론이 제기되었음을 상기시킨다. 특히 1970년 닉슨 독트린(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에 의한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의 중립화 가능성을 높였다. 다시 말해 미군 철수로 한반도의 안보 균형이 깨지는 것을 대비해 중립화로 안보의 균형추를 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립화는 실현되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죽은 정책은 아니다. 특히 중립화론이 미군 철수의 대체 방안 가운데 하나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³⁹⁾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우리에게 불가능의 가능성을 제시했던 것처럼 중립화를 표피적으로 보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오히려 남과 북 그리고 주변 열강이 합의에 이르는 가장 현실적 평화통일 방안일 것이다.

역사에서 보았듯이 중립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 해야 한다는 체제 우월적 입장과 북한이 남한을 미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사회주의 이념 때문이었다. 2021년 현재 남한은 유길준이 중립화를 제안했던 상황 혹은 해방 이후 형성되었던 중립화 상황과도 많이 다르다. 현재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향한 주변 정세가 무르익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의 역량과 국제적 위상이 이전보다 놀랍도록 신장하여 정치, 경제 그리고 국방이 동북아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급부상하였다. 남한은 스스로를 보존하는 국방력 이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개방 의지를 세계에 밝히며 ‘보통 국가’로 나아가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 또한 중립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서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민족의 염원을 담아 주체적으로 한반도의 중립화를 국제사회에 제안해야 할 것이다. 통일에 대한 국제정세가 무르익고 남한과 북한 내 통일을 염원하는 세력의 역량이 준비되었음에도 정전협정 이후 68년 동안 휴전의 상태(status quo)를 유지하려는 주변국들

39) 위의 책, 158.

의 방입에 통일을 맡겨둘 수는 없다. 종전협정 후 3개월 내 평화협정이 맺어질 줄 알았는데 68년이 흐른 것이다. 통일은 민족의 생존이 달린 중대한 일이다. 그러기에 주변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중립으로 가는 길이 통일 한국에 가장 적합하고 정당한 일일 것이다.

3. 왜 영세중립국통일이어야 하는가?

지금까지 남북 모두 군사력에 의한 어느 한쪽의 일방적 통일만 강조했다. 이제 남과 북 모두 군사력으로써 통일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군사적 방법이 아닌 다른 통일방안은 무엇일까? 박순경은 양자를 일단 긍정하는 형식으로서 고려연방제를 지지했다. 신학적 이론에 근거했지만 남한 민중에게 과격이고 충격이었다. 남한 민중이 통일을 위해 무엇을 했던가의 반성과 동시에 원수와의 대화가 초래할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남과 북의 공존의 길 그리고 사회주의 자본주의 체제들의 협동의 길로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할 것인가? 박순경은 고려연방제 지지라는 자신의 견해를 1990년 『기독교사상』 3』에 밝혔다. 특히 제3의 길이라는 통일방안은 “하나님 나라는 어느 특정한 체제나 이념과 동일화될 수 없는 초월적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며 그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 성취될 역사의 궁극적 미래를 가리킨다.”라는 신학적 근거에서 나온 것이다.⁴⁰⁾ 물론 박순경은 연방제 통일을 정립된 다음 최종적으로 민중·민주주의적 새로운 사회 경제질서가 실현되어야 하며, 동시에 1민족, 1국가, 1체제가 실현될 것으로 평화프로세스를 구상하였다. 1 민족, 1 국가, 1 체제를 최종 목표로 삼았다. 문제는 최종 목표를 향한 과정에서 국가 안에 2체제 그것도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사회주의 시스템의 양립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논자의 판단으로 박순경의 ‘민족개념과 통일신학을 ‘영세중립국 통일

40) 박순경, 『통일신학의 여정』, 114.

론'에 적용하여도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인다. 반드시 제3의 길이 고려연방제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마다 한반도 중립화가 현실적 제안으로 논의 되었다. 반면 고려연방제는 북한의 제안이었고, 이 제안을 수용할 한반도의 주변 국가는 현재까지는 없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당사국이 한·미·북·중인 것을 고려하며 4개국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한반도의 국가 양태이어야 한다. 통일 한국의 국가 운영 시스템으로서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양립하는 연방국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통일방안이 고려연방제 하나뿐이라면 몰라도 북수의 통일방안이 있다. 박순경의 통일신학과 '민족개념은 '영세중립국 통일론'에 더 적용하기 좋다. 새로운 제3의 길로서 '영세중립국통일론'의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박순경의 통일신학을 '종합적 평화윤리'로 접근하면, '종합적 평화윤리'란 기독교 평화주의의 신앙적 신념과 현실주의의 합리적 이성을 따라 종합적으로 행동하자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살인하지 말라'와 '원수를 사랑하라'는 정언명령을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기독교 평화주의이고, 죄로 인해 세상에 악이 들어왔고 이 악으로부터 세상의 질서, 개인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국가조직의 폭력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성에 근거한 기독교 현실주의이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 제1전승의 평화주의는 너무 먼 이야기이다. 그러나 지켜야할 전통이다. 세계가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으로 재편된 이후,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집, 재산, 건물, 일터, 공장, 편안한 삶과 가족 등 지킬 것이 많은 사회가 되었다. 이처럼 지킬 것이 많은 사회는 폭력성과 죄의 본성을 다스리기 위해 폭력의 사용을 합리성에 근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심지어 잠재적 적까지 제거하는 호전성도 합리성으로 포장된다. '현실적으로 무조건 폭력을 부인할 수만도 없다. 질서가 유지되어야 신앙생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에 그렇다.⁴¹⁾ 질서를 유지하는 한 사용된 폭력은 수단으로서 필연이다. 폭력이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통치 기술이 된 것이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세속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적 사랑에 귀속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떤 폭력에도 가담하지 않음으로써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한다. 여전히 기독교 평화주의적 영성 안에서 머물기를 원한다. 사실 기독교 평화주의는 ‘살인하지 말라’는 정언명령을 끝까지 고수한다. 어느 한 편을 드는 순간 ‘정당 전쟁론’의 논리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기독교 현실주의자들은 세속 권력이 일삼는 파괴가 총체적임을 들어 평화주의자들의 온정주의와 무책임성을 비판한다. ‘행하지 않음’으로써 편을 들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일 것이다. 그러나 평화주의는 폭력을 반대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원수도 형제가 될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었고, 폭력 사용의 주체로서 현대판 콘스탄틴과 그의 공무원들의 음험함을 드러냈다.

“알려진 바대로, 4세기 때 모든 종류의 이교도적 신앙과 실천이 대대적으로 교회에 유입됐다. 이러한 유입은 아주 쉬운 일이었다. 이른바 로마 황제 콘스탄틴의 개종에 이어 대다수 공무원과 제국의 고위층 인사, 그리고 최근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 장로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새로운 교회 안에서 자신들에게 습관처럼 익숙한 조상들의 구습을 다시 찾고 싶어 했다.”⁴²⁾

영세중립국 통일론은 기독교 평화주의와 현실주의가 수렴된 현실적 통

41) 이봉석, “기독교인의 폭력에 대한 인식변화와 기독교인다운 대응 원칙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48(2020), 212.

42) Jean Lasserre, *Les Chrétiens et La Violence*, 이봉석 역, 『기독교인과 폭력』 (서울: 늘봄, 2017), 90.

일방안이다. 강대국들의 집단적 협약에 의한 중립국 인정 조건 제1원칙에 따라 자국의 자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타국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중립국 지위를 훼손할 위험이 있는 어떠한 조약상의 의무도 지지 않는다. 이 원칙에 따라 누구의 편을 들어 전쟁을 수행할 이유는 사라진다. ‘살인하지 말라’는 기독교 평화주의 계명을 현실 속에서 실천할 길이 열린 것이다. 또한 남한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엄연히 존재하며, 높은 경제적 대외 의존도로 인해 동북아국 누구보다 역내의 군사 외교적·경제 통상적 갈등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국가생존과 국민 복지의 차원에서 역내의 평화 협력이 절실하다. 이 모든 현실적 위험 요소는 중립이란 안정적이고 평화적 공간이 제공 될 때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IV. 나가는 말

기독교적 관점에서 치유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와 관계회복이다. 종전선언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한반도에 통일 한국이 건국되면서 화해가 일어날 것이다. 휴전협정이 있고 3개월 안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이라 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68년째 통일을 향한 평화협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누구의 책임일까. 미국·중국·일본·북한만의 책임이라 하기에는 한국과 북한 사이에 혐오와 증오, 원망과 불신의 이념적 열광주의가 더 크게 보인다.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나라를 탓하기에도 68년의 정전상태는 민족모순이 집결된 죄로부터 한민족 전체가 책임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어떻게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 본 논문은 전쟁의 트라우마와 오염된 이념 아래 사는 남한과 북한 사람들에게 시민도 되고 인민도 되는 새로운 한민족 개념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그리고 보람

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광장을 제안함으로써 원수를 사랑하는 포용의 관계로 나아갈 것을 목표로 삼아 연구하였다.

‘중립화’에 대한 계보학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두 한국 사이의 화해와 관계회복을 위한 역사적 사건을 추적하다 첫 번째로 박순경의 통일신학을 만나게 되었다. 두 번째 만남은 한반도 중립화 이론이다.

통일신학과 관련해서, 박순경은 새로운 통일 한국에 어울리는 ‘민족’ 개념을 세워놓았다. 그의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와 반공 이념 그리고 인민 공화국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지지하는 이념적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옳음과 좋은의 민족 공동체’이다. 그리고 박순경이 말하는 ‘민족’은 통일의 주체로서 결코 계급모순의 피해자들을 배제하지 않는다.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여 요청하는 기층 민중, 구조적 억압과 차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외치는 여성, 이들이 민족과 결합하여 통일을 이루는 주체가 된다. 박순경의 ‘민족’개념의 정초가 ‘통일중립국한국’이라는 국가양태 구성에 토대가 되었다.

한반도 중립화이론과 관련하여, 한반도에 여러 차례 중립화 시도가 있다. 1945년 8·15해방이 있기 전부터 한반도의 중립화가 준비되었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하여서도 중립화 제안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결정적 시기마다 한반도의 중립화 논의는 제안되고 사장되기를 반복하였다. 비록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여전히 실현 가능한 통일방안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다. 박순경이 지지했던 고려연방제보다 더 실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본 논문에서 한반도 중립화와 기독교 평화주의의 연관성을 심화시키지 못한 것은 향후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제로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광식. 『중립화와 한반도 통일』. 서울: 백산서당, 2010.
- 김태우. 『냉전의 마녀들, 한국전쟁과 여성주의 평화운동』. 파주: 창비, 2021.
- 김태우. “소외된 남북한, 요원한 평화: 한반도 군사정전협정의 내용과 성격”, 『내일을 여는 역사』 51(2013). 88-108.
- 남시혁. 『한국 보수세력 연구』. 파주: 나남, 2006.
- 박순경. 『통일신학의 고통과 승리』. 서울: 한울, 1992.
- _____. 『통일신학의 여정』. 서울: 한울, 1992.
- _____. 『하나님나라와 민족의 미래』.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363.
- 박태균. “한반도 중립국 통일론과 주한미군”. 『황해문화』, 제100호(2018) 60-80.
- 서광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8. 312.
- 유경동. 『남북한 통일과 기독교의 평화』. 서울: 나눔사, 2012. 148.
- Jean Lasserre, 이봉석 역. 『기독교인과 폭력』. 서울: 늘봄, 2017.
- 이병성. “한국 개신교와 민족주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대 민족대단결 민족주의”. 『기독교사회윤리』. 48(2020). 159-190.
- 이봉석. “기독교인의 폭력에 대한 인식변화와 기독교인다운 대응 원칙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48(2020). 191-216.
- 이은선. “한국 여성신학자 박순경 통일신학과 성성성의 여성신학”. 『한국여성신학』. 91(2020). 96-128.
- 이창호. 『평화통일 신학과 실천: 기독교 통일 연구의 흐름과 전망』. 서울: 나눔사, 2019.
- 정육식.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북미관계와 한반도”. 『기독교 사상』. 750호(2021. 06). 9-18.
- 프랑소아 주아이오. “통일을 위하여 한반도를 중립화할 것인가?”. 『국제정치논총』. 제27호(1987). 127-136.
- 김중학. 2021.01.05, 한반도 공동보장 구상의 역사적 기원: 19세기 벨기에·불가리아의 사례와 유길준의 「중립론」,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lCode=P03&pblctDtaSn=13699&koreanEngSe=K>

OR (2021.8.21. 접속)

- 이상숙. 2021.04.29, 중소분쟁 시기 북한 등거리외교의 특성과 현재적 함의,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lCode=P01
&pblctDtaSn=13780&koreanEngSe=KOR](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lCode=P01&pblctDtaSn=13780&koreanEngSe=KOR) (2021.10.31. 접속)
- 이상신. 2021.07, KINU 통일의식조사 2021 -Executive Summary-,[https://
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e17db3fa-a0ed-41c7-9067-81e
3962cd34a](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e17db3fa-a0ed-41c7-9067-81e3962cd34a) (2021.12.08. 11시 30분 접속)
- 이정배, 2020.06.25, 한국전쟁 발단(원인) 논쟁에서 본 통일과 그의 신학적 함의,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64>
(2021.10.21. 접속)
- BBC News 코리아, 2021.09.27., 종전선언: 북한, 임기 말 한국 정부에 대화시그
널... 갑자기 왜?, <https://www.bbc.com/korean/news-58636272> (2021.
9.21. 접속)

논문투고일: 2021년 10월 31일

심사개시일: 2021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13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신학적 차원에서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 중립국’ 모델의 현실화 가능성을 밝히기 위해 박순경의 한반도 중립화 방안의 역사와 오늘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박순경의 ‘민족’ 개념의 세 가지 특성을 기독교 평화주의라 할 수 있는 ‘편들지 않음’의 입장에서 정리했다. 첫째 신학적 주제로서 ‘민족’은 구약의 계약사상과 신약의 ‘하나님 뜻 안에서 형제적 공동체’를 지시한다, 둘째 ‘민족’ 자체는 존재론적 역사를 공유하며 생존을 위해 반공 이데올로기를 넘어 ‘원수 사랑’의 계명을 따라야 한다, 셋째 기층 민중과 여성을 포함하는 ‘민족’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 민족모순과 세계모순을 해결하는 살림의 평화를 추구 한다. 새로운 통일한국의 국가 양태와 관련해서 박순경이 통일신학적 ‘민족’ 개념으로 고려연방제를 지지한다. 그러나 연구자는 ‘민족’ 개념과 통일신학의 적용이 제3의 길로서 고려연방제보다 ‘영세중립국 통일론’에 더 타당함을 세 가지 관점에서 발전시키는 것으로써 영구적 평화정착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한반도 중립화, 민족통일신학, 민족주의, 평화주의, 반공 이데올로기
